

보도시점 2026. 8. 11.(화) 14:00 (2026. 8. 12.(수) 조간)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구·경북!

- 고용노동부·지방정부·노동계·경영계·노동안전보건단체가 함께
산업재해 감축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화) 14시,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들어서 사고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주체 간 협력하여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현장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경영계, 안전보건기관, 대구·경북 등 지방정부 관계자,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하여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재해감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 빈발하고 있는 초소규모 건설, 별목 현장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작업정보 공유, 합동점검, 안전다짐 서명 확산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노후, 화학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진단·환경개선·교육 등을 연계한 통합 지원 사업 계획과 관계기관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 산업안전보건 현황 진단, 개선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토의하였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노사, 안전보건기관 및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과 지원을 잇는 ‘길목’이 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라운드테이블이 지역 주체 간 신뢰를 쌓고 대구·경북의 산업재해 감축방안을 함께 발굴하여, 이를 사업장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 말씀

담당 부서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책임자	과 장	용윤서 (044-202-8831)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안서종 (044-202-8889) 김건우 (044-202-8888) 이영훈 (044-202-8886) 박근영 (044-202-8848)
담당 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전황규 (053-667-6393)
		담당자	팀 장	안병혁 (053-667-6356)
담당 부서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교육홍보센터	책임자	센터장	송정원 (053-609-0511)
		담당자	차 장	임상태 (053-609-0572)



붙임 1**「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 ☐ (행사명)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 ☐ (일시) '26. 8. 11.(화) 14:00~16:00
- ☐ (장소) 대구 엑스코 서관 324호 회의실
- ☐ (참석)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지방정부) 대구·경상북도
 - (참석자) 노동계, 경영계, 노동안전보건단체,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
- ☐ (내용) 지역 내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지역 현안 논의
- ☐ (세부 일정)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 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 인사말씀	대구청장(황종철)
14:10~14:15 ('5)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모두 말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
14:15~15:05 ('50)	[세션1]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토의	참석자 전체
15:05~15:55 ('50)	[세션2]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 감축방안 토의	
15:55~16:00 ('5)	■ 단체사진 촬영	사회자
16:00	■ 폐회	사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에 함께해 주신
노동단체, 경영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방정부와 안전보건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을 국정 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을 갖춘 기업에는
엄정한 규제와 책임을 통해 안전투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재정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문제는 좋은 정책과 지원제도가 있어도
현장에 닿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달되려면
반드시 ‘길목’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행정망, 노동계와 경영계의 현장 접점,
안전보건기관의 전문성, 노동안전보건단체의 경험이
그 길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자원을 연결해야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과 지원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는 사고 이후 책임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에 현장의 위험 징후를 공유하고
함께 예방하는 소통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이 쌓일수록
지역 주체 간 신뢰도 더욱 단단해지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전체 사업장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했었으나,
금년도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으로
사고 사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위험부터 우선 살펴야 하는지,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을 어떤 길목을 통해 전달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업정보 공유와 합동점검, 안전진단과 작업환경 개선,
교육과 지원사업 연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대구·경북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단단한
네트워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